

1. 여성에게 더욱 심한 장애유발

담배는 중독성은 강하지
만 마약같이 범죄에 속
하지 않고 알콜처럼 사회와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
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더
구나 과거에 한국에서는 여
성의 흡연은 고된 시집살이
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
책으로, 미망인에게 위안이
되는 업초로서 인정이 되던
때도 있었다.

이 극히 미숙하기 때문에 소
량의 독성물질로도 큰 피해
를 입게 된다.

임신한 어머니가 담배를
피운 후 초음파로 태아의 움
직임을 실제로 관찰하면 담
배를 피운 2~3분 후에 태아
의 움직임이 갑자기 정지됨
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담배는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

또 20대 이후의 가임연령
에서는 임신율이 저하되며,
산모의 흡연시 나타나는 영
향 중에서 가장

는 0.4~0.44%로써 만성
흡연 산모의 2~14%는 월등
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 태아의 Carboxyhe-
moglobin농도는 산모보다
10~15% 정도 더 높다.

성인도 혈중의 Carboxy-
hemoglobin의 농도가
4~5%가 되면 정신작용과
행동능력에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 그러므로 태아가 산모
의 흡연으로 인한 저산소증
으로 발육부전과 정신발달의
장애를 받을 수 있음은 충분
히 이해가 되는 일이다.

니코틴은 산모의 Catec-
holamine을 증가시키며 이
로 인해 자궁과 태반의 혈류
량이 감소하여 태아로 가는
영양물질과 산소공급이 줄어
들게 된다.

흡연산모의 태반은 석회화
와 섬유소침착 등의 변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태반
용모의 모세혈관이 좁아지고
용모의 기저막이 두터워지는
등의 변화를 보인다.

흡연산모의 태반이 상대적
으로 커지는 것과 신생아의
헤모글로빈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부족한 산소공급을 보
충하기 위한 변화로 생각되
나, 이러한 변화로 태아가
흡연으로 인한 나쁜 영향을
완전히 보상받을 수는 없다
고 한다.

임신한 산모의 흡연이 태
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산소증으로 태아
의 발육이 지연되어, 비흡연
산모의 신생아보다 체중이

특집 / 흡연과 건강

여성과 흡연

송 해 영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그러나 흡연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신경계통의 섬세하
고 구체적인 기억부분에 장
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2. 산모는 물론 태아의 신생아도 위험

임신한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다는 연구 보고들이 많이 이
루어졌다.

이는 임신한 어머니가 담
배를 피우면 태아도 담배를
피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데 태아는 모든 세포조직들

확실한 것은 태아의 발육부
진이다.

임신 중 흡연은 조산, 사
산, 신생아 사망, 자연 유산
과 관계가 있다. 또한 무뇌
아, 선천성 심장 기형, 구개
열, 구순열 등의 태자기형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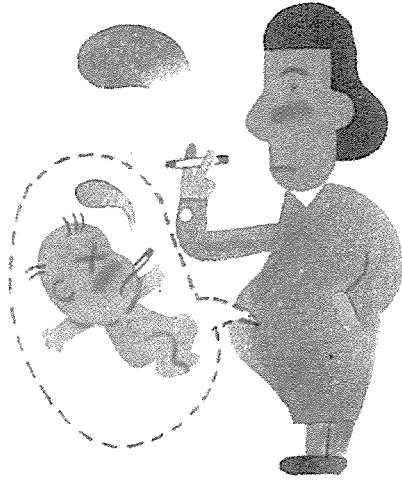
이러한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원인으로 담배 내의 일산
화탄소와 니코틴을 들 수 있
는데, 일산화탄소는 헤모글
로빈과 친화력이 강하여 혈
액의 산소 운반능력을 떨어
뜨린다.

비흡연 산모의 혈중 Car-
boxyhemoglobin의 농도

약 200gm정도 낮은 아기가 태어난다.

태아의 체중이 250gm보다 낮으면 조산이라고 하는데 조산아는 사망률이 대단히 높다. 담배피우는 어머니가 조산아를 낳을 확률이 2배나 높다.

둘째,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등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산전 출혈은 아기의 출생전후 사망률을 높이며 산모를 위험에 처하게 하기도 한다.



셋째, 조기파막의 빈도가 높아진다. 임신 중 태아는 양막에 둘러싸여 있고 양막 속에는 양수가 차 있어서 태아는 양수 속에 떠있게 된다. 양막은 진통 분만 중에 파열되어야 정상인데, 진통 전에 양막이 터져 양수가 새어나오는 것을 조기파막이라고 한다. 양막이 초기에 터지면 태아의 감염이나 조산의 원인이 된다.

넷째, 자연유산할 위험이

높다. 임신한 어머니의 계속적 흡연은 자연유산의 빈도를 2배나 높인다. 또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그 빈도는 더욱 높아진다.

다섯째,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 임신 중 흡연은 기형아 출생 확률을 약 2배나 높인다고 한다. 그 기전은 담배연기 속의 각종 유독물질이 태반을 통해 태아의 발육 과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여섯째, 영유아기에 신체적, 지적 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

일곱째, 태어난 어린이는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금단증상으로 아무도 모르게 큰 고통을 받는다.

이처럼 흡연이 산모는 물론 태아와 신생아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히 밝혀진 사실이나, 흡연처럼 노력하면 확실히 피할수 있는 임신에 대한 유해요소도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흡연여성이 임신 중에 금연을 시행하는 경우는 2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임신시에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하려는 정신적 동기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계속적인 금연교육과 관심을 기울이면 산모가 금연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즉 임신이 금연을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골다공증, 심장마비 발병률도 증가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골다공증이 있다. 흡연은 폐경기를 앞당기며 따라서 골다공증을 조기에 일어나게 하는데 흡연 자체가 골다공증을 일으키므로 흡연은 여성에게 무서운 적이 아닐 수 없다.

골다공증은 골형성의 감소 및 골흡수의 증가로 골량의 전반적인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외모나 방사선 검사에서나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으며 환자는 척추부의 둔통과 잦은 피로감 등의 일반적 증상만을 호소한다.

그후 골다공증이 조기진단이나 치료없이 진행되면 점차 허리나 등이 구부러지며 비로소 방사선 검사상 척추골의 변형이나 압박골절이 나타나게 된다. 흡추, 요추 이외의 골에도 다공화가 진행되면, 가볍게 넘어지기만 해도 쉽게 요골 하단 골절이나 대퇴골 경부 및 천자부 골절을 일으키게 된다. 골다공증은 여자에게서 약 4배 정도로 호발한다.

또 경구피임제를 사용하며 흡연하는 여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심장마비의 발생률이 7배나 높으며 하지혈관내의 혈액응고현상의 위험도를 높

인다고 한다. 또한 배우자의 심한 흡연으로 인해 임신부 및 태아에게 간접(수동)흡연이란 위험을 부담시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4. 폐암의 알려진 유일한 원인이다.

다음은 흡연이 남녀 모두에게 어떠한 위험을 끼치는지 살펴 보겠다. 우선 흡연은 입술에서 방광에 이르는 각종 장기에 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폐암을 일으키는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원인이다.

폐암이 흉부 엑스선 상에 나타나기에는 7년 가까이 세월을 요하며 이후 병원에서 진단이 되어 치료가 개시될 때까지 또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폐암은 타장기의 암에 비해 발생빈도가 매우 급증하고 있으나 알려진 치료법은 폐절제술이며 진단당시 10명에 1명 이하만이 이 수술이 적용되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행스러운 것이다. 폐암은 흡연 후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호발한다고 하며 과거 흡연자에게도 폐암이 발생된다고 한다.

폐암에 버금가는 호흡기 질환으로써 폐기종, 기관지염 등이 역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질환들은 비가역성질환으로 일단 생기면 돌이킬 수 없으며 금연하지 않는 한 호흡장애를 일으키게 되어 빈번한 입원과 가정

용산소요법을 요하는 등 가족에게는 부담을, 본인에게는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흡연은 기관지천식을 일으키기도 할 뿐 아니라 이를 악화시켜 만성병으로 만들기도 한다. 대기오염이나 알러지 등이 기관지천식의 발생빈도를 높이는데 흡연이 이를 가장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흡연으로 인한 담배의 열과 연기가 인후두와 구강 내의 점막을 자극함으로써 암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설암이나 백반증을 역시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상승적으로 음주가 그 몫을 담당하고 있다.

흡연은 소화성 궤양에 영향을 주어 십이지장 및 위궤양의 빈도가 흡연자에게 2배 정도 높으며 흡연 연령에 따라 그 빈도가 증가된다. 흡연은 치유된 소화성궤양의 재발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하루에 한 갑 반 이상을 피우면 치료중단 3개월내에 거의 100%에서 재발이 된다고 한다. 즉, 흡연은 궤양의 치유와 재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셈이다.

5. 담배의 체중

종종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체중이 늘어나 다시 피우

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여자가 몸을 날씬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반적으로 흡연자의 체중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4kg 적다. 담배를 끊으면 평균 2~3kg 체중이 늘고 심한 경우 5kg까지 는다는 보고도 있다.

담배를 피우면 체중이 주는 것은 식욕감퇴, 그리고 담배의 각종 독소 그중에서도 일산화탄소에 의한 만성 산소결핍증으로 신진대사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단 담배를 끊으면 체중이 즉시 늘게 되며 2~3개월이 지나면 다시 줄어든다고 한다. 담배를 끊고 나서 체중이 느는 것은 자기의 본래 체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체중을 줄이는 여러 방법중에서 가장 해롭고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72